

# 식물요법(Phytotherapy)

## 직장염 및 치질

저자 황완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

### 개요

직장염 치료에는 특이적으로 사용되는 생약이 없으나 보조적으로 첫째, 소염제가 사용이 되며 둘째는 수렴제, 셋째는 진경제가 처방되어 사용된다. 소염제로서는 케모마일이, 수렴제로는 포텐틸라가 주로 처방되며 대변이 정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완하제가 종종 사용이 되고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

치질은 적합한 치료를 하면 100% 완치가 가능하나 증상과 정도에 따라 많이 다르다. 가벼운 치질은 비수술적 요법, 즉 충분한 휴식, 변비나 설사가 생기지 않도록 섬유질을 풍부히 섭취하고, 특히 따뜻한 좌욕으로 매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 치질증상을 예방 또는 경감시킬 수 있다.

치질의 식물요법은 기본적으로 변비에 사용되는 사하성의 식물요법 또는 직장염 치료 처방과 매우 유사하다. 경구투여의 경우 사하성, 소염성 및 진경성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 항문문맥 혈관의 긴장성을 높이기 위해 고미강장약을 추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럴 경우 항문정맥의 부담이 매우 감소하며 출혈이 있을 경우 지혈제를 배합하거나 추출하여 좌욕을 실시하는데 주로 tannin이 많이 함유된 식물요법을 처방하게 된다. 따라서 직장과 치질관련 질환 치료는 그 증상 하나하나에 따라 식물요법 처방을 간단하게 가감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존적 치료 또는 증상 치료 등에 의한 효과가 없고 치핵의 심한 탈항이 와서 손으로 밀어 넣어야 할 경우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

### 키워드

치질다제, 여뀌, 내버들, 떡갈나무, 오이풀, 밤나무, 오리나무

### 1. 직장염에 많이 사용되는 처방

일반적으로 다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처방으로 소염제로 Chamomillae flos (케모마일), 수렴제로 Potentillae radix (위릉채) 및 사하제로 Sennae folium (센나엽) 등을 각각 1~2티스푼을 용기에 넣고 100 mL 끓는 물을 부어 10분간 추출하여 아침과 취침 전에 한 잔씩 몇 주간 마신다.

### 2. 치질에 많이 사용되는 처방

유럽에서 치질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제 처방으로 Camomillae flos (케모마일), Acori rhizoma (창포), Foeniculi fructus (회향) 및 Sennae folium (센나엽) 등을 각각 1~2티스푼 정도 찻잔에 넣고 끓는 물 100 mL를 부어 10분 정도 추출하여 여과한 후 아침과 취침 전에 각각 한 잔씩 복용한다. 또한 항문출혈을 수반

할 경우 지혈제로 Potentillae radix (위릉채) 또는 Sanguisorbae radix (위유)를 추가한다.

### 3. 여뀌(*Polygonum hydropiper*)

잎은 매우 부드럽고 엽액에서 자적색의 작은 꽃이 피며 주로 습지나 만 주변 등에 자생한다. 전초에 고추와 비슷한 매운 맛을 가지고 있어 water pepper라 한다. 사용 부위는 지상부 전체를 사용하며 수료(水蓼) Polygoni hydropiperis herba라 한다. 성분으로는 정유로서 tadeonal, isotadeonal을 flavonoid로서 persicarin, quercetin 배당체 외 tannin 등이 함유되어 있다. 유럽에서 치질 및 산부인과 관련 출혈에 지혈제로서 사용하여 왔으나 활성성분은 명확하지 않다. 사용방법은 장기간 사용해야만 효과가 있으며 주로 출혈이 있는 치질의 처방에 첨가되며 적어도 전량 100 g의 처방약에 30~40 g 정도 넣는다.

특히 사하성의 치질 처방과 수료 분말에 대하여 치질 처방은 아침에 수료 분말을 사용하고 자기 전에는 각각 티스푼 2개 정도를 10분간 추출하여 찻잔 하나 정도씩 출혈이 멈출 때까지 복용한다.

### 4. 내버들(*Salix gilgiana*)



여뀌

내버들

우리나라 전 지역의 물가에 자생하는 낙엽성의 저목으로 5 m 정도 자라고 이른 봄꽃이 핀다. 사용 부위는 주로 수피로 수양피(水楊皮) Salicis cortex라 하여 건조하여 사용하나 치질에는 이른 봄의 꽃과 잎의 유아(幼芽)를 주로 사용한다. 성분은 phenylpropanoid계 성분과 aspirin의 전구체인 salicin 및 tannin 등이 함유되어 있으나 특히 꽃과 유아에는 tannin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약효에 대해서는 수피의 경우 기원 전 2천년부터 해열진통제로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치질의 경우 건조한 꽃 또는 유아 분말 10 g 정도를 1 L 정도 열수로 추출하여 따뜻하게 좌욕을 하거나 연고 또는 화장품 기체에 분말을 혼합하여 향문에 자주 바르면 치질로 인한 출혈, 가려움증과 통증이 진정된다.

### 5. 떡갈나무(*Quercus dentata*)



떡갈나무

오이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온대지방 전역에 자생하는 낙엽성의 교목으로 키가 20 m에 이르며 근연식물이 매우 다양하다. 열매의 경우 형태는 조금씩 다르나 도토리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전분을 묵으로 하여 식용한다. 약용 부위는 주로 수피로 해피(櫟皮) Querci cortex라 하여 사용한다. 성분은 tannin과 quercitrin으로 민간에서 수렴성의 소염 지혈제로 사용한다. 사용방법은 한 주먹 정도의 껍질을 1 L의 물에 넣어 15분간 끓이고 여과한 후 따뜻하게 하여 좌욕을 하거나 수건 등에 습포시켜 아침과 자기 전 향문에 1 시간 정도 습식요법을 하면 치질로 인한 향문의 가려움과 2차 염증을 억제하는 데 매우 좋다.

### 6. 오이풀(*Sanguisorba officinalis*)

우리나라 등 유라시아대륙 산지 및 초원에 자생하는 식물로 다년초이며 뿌리가 비후하고 꽃은 분홍색이다. 사용 부위는 뿌리로 지유(地榆) Sanguisorbae radix라 하며 늦가을 채취하여 세척하고 잔뿌리를 제거한 뒤 건조하여 사용한다. 성분은 뿌리에 saponin으로 ziyu-glycoside와 pomolic acid 그리고 tannin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다. 임상적으로 지유는 지혈제로서 혈변이나 치질로 인한 출혈에 사용하며 치질로 인한 2차 감염에도 사용한다. 사용방법은 향문 출혈이 있을 때 분말로 하여 상용다제에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1일 5~10 g에 물 300 mL를 가하고 반 정도 졸 때까지 끓인 후 3회 분복하거나 추출한 액을 여과하여 향문에 습포하는 것도 치질로 인한 염증을 억제하는 데 좋다.

### 7. 밤나무(*Castanea crenata*)

우리나라 각지의 산야에 많이 자생하는 과실수로 큰 것은 20 m에 달한다. 지금은 대부분 야생종을 개량한 재배품종으로 과실이 성숙하면 가늘고 긴 침이 밀생한 각두에 2~3개 정도의 견과가 내포되어 있으며 주로 견과는 식용한다.



사용 부위는 전 부위를 다 사용하나 주로 수피로 울피(栗皮) *Castaneae cortex*라 하여 껍질을 양건하여 사용한다. 성분으로 tannin이 6~8% 함유되어 있고 ellagitannin 및 gallic acid가 주성분이고 이외에 pedunculagin이 함유되어 있다. 현재 시판되지는 않으나 민간에서 수렴성의 소염지혈제로 외용을 한다. 사용방법은 껍질 10 g 정도를 1 L 물에 넣고 15분간 끓인 뒤 여과하여 아침, 저녁으로 좌욕을 하거나 습식 요법으로 수건에 침투시켜 사용하면 치질로 인한 소양증 및 항문의 2차 감염을 억제하는 데 매우 좋다.

### 7. 오리나무(*Alnus japonica*)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습기가 많은 산과 들에 자생하며 큰 것은 15 m에 달한다. 암꽃은 구과지만 성숙하면서 건과가 된다. 우리나라에 *Alnus*속은 근연식물이 매우 많고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는 뿌리혹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어 야산의 비료목으로 심어 분포도가 높다.

약용 부위는 과실로 *Alnuds fructus*라 하며 건조하여 사용한다. 성분은 과실에 25~27%의 tannin이 함유되어 있어 수렴성의 지혈작용이 매우 강하다. 사용법은 건조과실 30 g을 1 L 물에 넣고 끓인 후 여과하여 좌욕을 하거나 농축하여 연고로 만들어 항문에 바르면 소양성의 동통과 치질로 인한 출혈이 개선된다.

## 약사 Point

### 1. 치질다제

: Camomillae flos (케모마일), Acori rhizoma (창포), Foeniculi fructus (회향) 및 Sennae folium (센나엽) 등 각각 1~2티스푼을 찻잔에 넣고 끓는 물 100 mL를 부어 10분 정도 추출하여 여과한 후 아침, 저녁 한 잔씩 복용하며 항문출혈을 수반할 경우 지혈제로 Potentillae radix (위릉체) 또는 Sanguisorbae radix (위유)를 추가하면 도움이 된다.

### 2. 여귀

: 사용방법은 주로 출혈이 있는 치질의 처방약(100 g 기준)에 30~40 g 정도 넣는다. 특히 사하성의 치질 처방은 아침에 여귀 분말을 사용하고 자기 전에는 각각 티스푼 2개 정도를 10분간 추출하여 출혈이 멈출 때까지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 3. 내버들

: 치질의 경우 건조한 꽃 또는 잎의 어린 싹 분말 10 g 정도를 1 L 정도 열수로 추출하여 따뜻하게 좌욕을 하거나 연고 또는 화장품 기제에 분말을 혼합하여 항문에 자주 바르면 치질로 인한 출혈, 가려움증과 통증의 진정에 도움이 된다.

### 4. 떡갈나무

: 한 주먹 정도의 껍질을 1 L의 물에 넣어 15분간 끓이고 여과하여 따뜻하게 한 뒤 좌욕을 하거나 수건 등에 습포시켜 아침과 자기 전 항문에 1시간 정도 습식요법을 하면 치질로 인한 항문의 가려움과 2차 감염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 5. 오이풀

: 항문 출혈이 있을 때 분말로 하여 상용다제에 추가하여 음용하거나 1일 5~10 g에 물 300 mL를 가하고 반 정도 줄 때까지 끓인 후 3회 분복하거나 추출한 액을 여과하여 항문에 습포하는 것도 치질로 인한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 6. 밤나무

: 껍질 10 g 정도를 1 L 물에 넣고 15분간 끓이고 여과하여 아침, 저녁으로 좌욕을 하거나 습식요법으로 수건에 침투시켜 사용하면 치질로 인한 소양증 및 항문의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 7. 오리나무

건조과실 30 g을 1 L 물에 넣고 끓인 후 여과하여 좌욕을 하거나 농축하여 연고로 만들어 항문에 바르면 소양성의 동통과 치질로 인한 출혈에 도움이 된다.

## ■ 참고문헌 ■

- Rudolf Fritz Weib, 1991, Lehrbuch der Phytotherapie, Hippokrates Verlag GmbH
- Max Wichtl, 2004, Herbal Drugs and Phytopharmaceuticals, CRC Press.
- Pharmaceutical Press., 2013, Herbal Medicine, Pharmaceutical Press.